

키네마 준보 문화영화초대

Watanabe Minoru 영화평론가

침묵 - 일어서는 위안부

아리랑의 노래 제작위원회 작품

[내용] 일본군이 제 2차 세계대전(태평양전쟁) 중 아시아 여러 나라에 한 잔혹 행위들. 그 중에서도 참혹하고 몸서리쳐지는 종군위안부의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다룬 영화는 본지에서도 <“기억”과 살아가다>(15년/도이 도시쿠니 감독/본지 1689호 게재)를 시작으로 많은 작품을 소개했다. 종군위안부 문제는 국경을 넘어선 인권문제이며 관계국 위정자의 대응이 시대에 따라 변한다 해도 그 개인의 인권문제의 본질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그것을 몸소 그 긴 세월 동안 고발해 온 사람들이 바로 타의로 위안부가 된 여성들이다. <침묵-일어서는 위안부>는 지금(촬영 당시 2015년)까지 일본 정부 측의 대응에 불만을 가지고 항의를 시작해, 전쟁 때문에 잃어버린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살아온 여성들을 취재하고 기록한 작품이다.

이번 영화는 박수남 감독의 신작이다. 감독은 1935년 미에현(三重県)에서 태어난 재일조선인 2세이다. 1958년에 발생한 고마쓰가와 여자고등학생 살인사건 사형수 이진우와의 편지 왕래를 묶은 서간집<<죄와 죽음과 사랑>>등 재일조선인의 입장과 저널리스트 언론인의 입장에서 사회문제를 폭넓게 제기해 왔다. 저서도 많다. 영화감독으로는 <또 하나의 히로시마>(86년), <아리랑의 노래-오키나와로부터의 증언>(91년), <누치가후(명과보/목숨운이 좋은 것)-옥쇄장에서의 증언->(12년 야마가타 국제다큐멘트리영화제 2013년 특별초대작품)등이 알려져 있다.

할머니들과 감독

영화 서두, 2014년 한 여성이 속리산의 한 마을을 찾아간다. 이 여성이 바로 본 영화의 감독 박수남 씨이다. 박수남은 이 마을에 홀로 사는 90세 노인 이옥선 씨를 방문한다. 이옥선 씨는 경상북도 대구 출신. 17살 때 위안소로 연행되었다. 일본이 패전한 후 귀향을 해도 자신이 겪은 일을 부모에게도 말 못 하고 결국 홀로 설악산에 들어와 살았다. 그 후 이옥선 씨는 장구 연주로 살림을 꾸린다. 이 영화 안에서도 할머니들이 행동할 때 장구를 두드리는 그녀의 모습은 상징적으로 비쳤다. 그리고 감독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토론했던 어조로 이야기하며 지금도 국가를 상대로 투쟁 중이라고 단언한다. 이를테면 영화의 중요한 안내자이자 주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의미를 조금 더 펼쳐 보면 이 영화는 첫 부분부터 이옥선 씨처럼 박수남 감독의 모습도 화면에 자주 등장한다. 박수남 감독의 이력은 전술한 바와 같이 그녀는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특히 위안부 문제는 재일 여성인 자신에게도 남다르게 다가왔을 것이다. 또 감독 자신이 의지와 관계없이 위안부가 된 여성들의 나이와 비슷하다는 것, 그것 때문에 생겼을 공감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가해자 피해자의 관계를 같은 여성만이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에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영화의 첫 부분에서 방문자로 등장하는 박수남 감독은 취재 대상의 할머니들과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나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조선인이라는 혈연이 그녀들과의 거리를 좁히게 한다. 말하자면 박수남 감독은 당사자와 타자의 관계를 감독 특유의 성격으로 이어주는 실로 귀중한 존재이다.

나는 영화 서두부터 감독을 좋은 이해자 그리고 안내자로 생각하는 이옥선 씨를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됐다. 이 시점으로 보면 등장하는 다른 할머니들에게도 같은 친밀감을 느꼈다. 영화는 98년 이옥선 할머니가 뜻을 같이하는 18명의 할머니들과 일본 정부에 사죄와 개인포상을 요구하는 <한국 '중군위안부' 피해자회>를 발족한 때부터 당시의 기록 영상 등을 담아 전개해 간다.

등장하는 할머니들 6명이 정중히 소개되고 그녀들이 공식 석상에서 항의하는 장면뿐만 아닌 개인의 사적인 생활 기록도 빠지지 않고 담아 놓았다. 방대한 영상이 기초가 되어 작품에 깊이를 더해 준다. 몇십 년에 걸친 그 취재 기록영상은 시간, 공간을 한층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거기에서 할머니들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일본, 한국의 국가로서의 입장, 그리고 무엇보다 양국의 틈에서 있는 할머니들의 개인의 고뇌를 엿볼 수 있다.

나는 지금까지 한국영화, 한국문화를 통해 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번 영화에서 퇴로를 끊는 위안부들의 행동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한'을 알게 된 것 같다.

다시 말하지만, 이 영화에는 자기 자신이 복잡한 태생인 제일조선인 2세 박수남 감독이 할머니들을 보는 시선과 자세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이 강하게 느껴졌고 할머니와 감독이 화면에서 일체화될 정도로 할머니들을 응시하는 감독의 강인한 의지가 지금까지 어디에도 볼 수 없는 것이었다. 이것은 박수남 감독 집념의 작품이다. 12월 2일부터 시부야 업 링크 외 로드쇼. (문의:아이랑의 노래 제작위원회 전화번호:090-6867-3843)

번역:천영주

키에노 준보 작품 평가

작품 : 침묵-일어서는 위안부

★★★★★ 강추
★★★★★ 추천
★★★★ 불만함
★★ 나쁘지 않음
★ 비추

우에노 고시 ★★★★★

평론가. 41년생. 문학, 사진, 사회시평까지 저서가 다수 있음.

패전 당시, 불리한 기록은 태워 없앴는, 없었던 일로 하는 전통은 지금도 존재해 있는 이 나라에서는 종군위안부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면 밀어붙이는 무리가 날뛰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박수남 감독의 20년에 걸친 역작은 귀중하다. 본 작품에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한국'종군위안부'피해자 모임>의 여성들도 하나씩 생을 마감할 것이고 결국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 부재를 안도하고 모른 척 넘어갈 것이 뻔하다. 그때 이 기록이야말로 사실을 증명할 것이다.

가미지마 하루히코 ★★★★★

영화평론가. 59년생. 저서<<피의 옥좌>>(샤쿠힌사)등.

이렇게까지 한일정부 간 합의가 꼬여버린 이상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싶지 않은 것이 보통 일본인의 감각일 것이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보기 바라는 작품이다. 전범의 손자에 의한 전쟁가담 합법화 정권을 지지하는 국민이 과반수인 이 나라에서 또 하나의 전쟁 범죄라 할 수 있는 성폭력 피해를 끊임없이 고발하는 그 고뇌는 영화를 통해서도 잘 전해진다. 감독 박수남이 이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발단부터 현재까지 잘 담아 놓았으므로 꼭 봐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오키나와전을 비추고 있다. 이것에 대한 의미는 아주 중요하다.

요시다 ? ★★★★★

영화평론가. 78년생. 저서<<영화평론 입문!>> (요센사)

위안부였던 여성들의 투쟁이 담긴 시간의 길이를 실감시키는 것은 기록 매체의 변천이다. 16m 필름에서 비디오로 바뀌고 업무용 카메라에서 가정용으로 소형화되어 선명하지 않은 화질이 시대를 거치면서 선명하게 변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태는 반대로 불투명하게 전개된다. 본 작품의 취지에 찬동한다면 만족하면 되겠지만 무지한 사람도 포함해 위안부를 부정하는 목소리가 큰 지금 홀로코스트 부정파와의 법정극 '나는 부정한다'는 아니지만 새로운 방법으로 반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